

# 바람직한 콘텐츠 발굴의 첫걸음\*

- 전통문화에 내재한 지역민의 원형(Archetype)과 정체성(Identity)찾기-

강명혜\*\*

|| 차례 ||

- I. 들어가기
- II. 지역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전통문화 활용
- III. 나오기

## 【국문초록】

지역의 사회, 역사, 문화적 배경 및 지역민의 소망이나 원망, 희망 등은 그 지역의 민속이나 문화, 구비문학 속에 깊게 스며들면서 직조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그 지역의 문화나 민속, 구비문학에는 그 지역민의 집단무의식이 적층되어 있다. 그 지역의 정신, 지역민의 염원이나 희망 등 그 지역의 아키타입이나 아이덴티티가 내포된 문화 축제가 조성되고 활성화될 때 비로소 뿌리 깊은 축제나 축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고 전통도 쌓이면서 부가가치도 창출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지역의 아키타입이나 아이덴티티가 내재되어 있지 않은 콘텐츠가 개발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수반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실제로 평창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구비문화, 특히 설화를 대상으로 해서 평창민의 원형이나 아이덴티티를 규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콘텐츠나 스토리텔링을 개발할 수 있다는 표본을 제시했다.

평창지역 구비물을 살펴본 결과 평창읍은 샘, 신기한 물, 봉황, 조리 형국 등으로 수해가 없는 평안한 땅, 미탄면은 은혜 깊은 이야기, 망월놀이, 방림면은 지킴이나 산삼 캔

\* 2015년 8월 21일 『한민족어문학회』 320차 전국학술대회, “바람직한 콘텐츠 발굴의 첫걸음” 발표 원고를 수정한 것임.

\*\*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원 연구원

이야기, 도깨비 담 등 횡재와 관련, 대화는 보은, 부귀와 관련, 봉평은 악을 물리치고, 부자 되고, 보은과 행운을 주는 것과 관련, 용평은 무엇인가를 물리친 이야기, 보은, 행운, 재산과 관련. 옥쇄가 있는 곳, 金鷄抱卵形, 진부는 보은과 관련, 특별한 혜택을 받음, 세조이야기, 만과봉, 약수, 도암(대관령)은 언제나 왕이 도래하는 곳, 발왕산, 용산, 명당 연하부수로 환원되고 있었다.

스토리텔링과 관련된 문화콘텐츠는, <울곡>의 경우는 ① 위기에서 구해주는 울곡 밤 개발, ② 평창에 와서 머물면 귀자를 임신한다.(울곡 및 이효석 잉태지), ③ 평창은 좋은 기운이 있어서 부를 획득한다, ④ 돈을 벌게 하는 금색 뱀(귀여운 캐릭터) 혹은 꼬마 용, ⑤ 울곡 아기 캐릭터 개발, ⑥ 애니메이션, 뮤지컬 개발-연출 중요, ⑦ 주막 콘텐츠-주막음식 및 향토적인 음식 판매, <태기 왕>의 경우는 ① 태기 왕 무예촌 구축-종합적인 콘텐츠 개발, ② 태기 왕 캐릭터 개발, 이를 뮤지컬이나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③ 태기 왕 투구, 옥쇄, 옥대 등 상품화, ⑤ 옥쇄 찾기 등의 방향으로 개발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주제어 : 지역성, 소망, 직조, 집단무의식, 적층, 원형, 부가가치, 평창, 구비문화, 전통 축제, 아이덴티티, 신기한 물, 횡재, 스토리텔링

## I. 들어가기

지방자치 시대에 접어들면서 각 지자체는 소득 증진에 힘쓰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 생산품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문화관광 분야를 활성화시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시도가 모색되고 스토리텔링이나 문화콘텐츠 분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재 추세이다. 따라서 어떤 스토리텔링과 문화콘텐츠를 생성하는가의 문제가 지역 축제나 문화축전을 좌우하게 된다.

사실 현대인들은 스토리로 보고, 먹고, 느끼고, 체험한다. 우리는 볼펜을

한 자루 살 때도 ‘시험에 꼭 합격하는 불펜’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아무 문구도 새겨져 있지 않은 불펜보다 선호한다. ‘이 다리를 연인과 건너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스토리텔링을 입힌 다리는 ‘믿음’과는 상관없이 많은 청춘남녀가 그 다리를 건너고 싶어 한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근거도 없이 많은 스토리를 창작하거나 남발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는 설득력을 얻기도 힘들다. 소위 근거와 뿌리가 없는 이야기는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한다. 허구만을 지향할 때 그 생명력은 짧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각 지역마다 축제나 문화제 등이 우후죽순처럼 생기지만 지역 간 변별성이 없어서 단발성 행사로 끝나는 곳이 많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1,000여개에 육박하던 지역축제가 6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한다. 이에 “축제가 단순히 많은 것이 문제는 아니지만, 대다수 축제들은 비슷하게 따라하는 수준으로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자체의 창조적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sup>1)</sup>

이러한 현상은 결국 그 지역의 원형(archetype)<sup>2)</sup>이나 정체성(identity)<sup>3)</sup>을 고려하지 않고 남의 것을 따라 하기에만 급급했다는 것에서 그 원인

1) 2014. 11. 5.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2) 아키타입(archetype)은 칼 융의 분석심리학에서 사용했던 ‘집단무의식’이란 용어에서 비롯되었다. 문학에서는 原型, 아키타입, 집단무의식으로 표기하며, 모두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 고래로부터 인간들이 지니고 있는 집단무의식을 지칭하는 것으로 모든 인간은 ‘빛을 원하고’, ‘어둠을 두려워하며’, ‘봄, 여름을 긍정적 상징물’로, ‘가을, 겨울을 쇠락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등이 대표적인 인류공통의 아키타입이다. 동양과 서양이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는 아키타입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달’과 ‘용’이다. 본고에서는 원형을 고래로부터 형성해 온 지역민의 집단무의식이란 의미로 사용하고 그 뜻을 살리기 위해 아키타입, 원형이라고 표기한다.

3) 아이덴티티(identity)는 E.H. 에릭슨의 정신분석적 자아심리학과 G. 올포트의 인격심리학 등에서 사용한 용어인데, 분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수용한다. 본고에서는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는 동일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

을 찾을 수 있다. 지역민의 집단무의식, 즉 그들의 오래된 열망이나 원의, 원망 등이 내재한 스토리텔링이나 문화콘텐츠가 조성될 때 비로소 지역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으며 적극적인 동조가 수반된다. 지역민의 아키타입이나 아이덴티티가 내재해 있는 콘텐츠나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한 문화축전이나 축제는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는 필요충분적 요건을 지닌다. 그리고 그 지역만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으로 이어지기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동인으로 작용한다. 그 지역만의 독특한 먹거리, 볼거리, 들을거리 등이 있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지속적으로 그곳을 방문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사회, 역사, 문화적 배경 및 지역민의 소망이나 원망, 희망 등은 그 지역의 민속이나 문화, 구비문학 속에 깊게 스며들면서 직조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그 지역의 문화나 민속, 구비문학에는 그 지역민의 집단무의식이 적층되어 있다. 그 지역의 정신, 지역민의 염원이나 희망 등 그 지역의 원형(archetype)이 내포된 문화 축제가 조성되고 활성화될 때 비로소 뿌리 깊은 축제나 축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고 전통도 쌓이면서 부가가치도 창출될 수 있다. 본고는 이를 염두에 두고 실제로 지역의 문화나 민속, 구비문학 속에 내재한 지역민의 오래된 소망이나 원의, 희망 등을 찾아서 이를 적용한 스토리텔링이나 문화콘텐츠의 방향이나 성격, 종류 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지역 문화에 대해 제대로 된 해석이 수반되지 않은 채 이를 콘텐츠화 함으로써 변창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2018년 동계올림픽 예정지인 평창지역을 택해서 이 지역만의 특색 있는 문화콘텐츠나 스토리텔링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sup>4)</sup> 즉, 어떤 문화콘텐츠를

---

험 또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그 지역민이 지니는 고유한 정체성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4) 평창은 2018년 동계올림픽 예정지로서 어떤 문화콘텐츠가 조성되어야 성공할 수 있

조성할 때 그 지역만의 고유성을 간직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지역민들의 지지와 협조 속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출발한다.

## II. 지역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전통문화 활용

### 1. 지역민의 원형(archetype), 정체성(Identity)과 전통문화와의 함수관계

각 지역에는 그 지역만의 원형 즉, 아키타입이 있다. 이러한 원형성은 표면화되어 있지 않지만 그 지역에 전해지는 구비문화, 민속, 문학, 예술 등에는 직조되고 적층되면서 면면히 전해진다. 지역민의 오래된 꿈과 모든 염원, 희망 등은 그 지역의 전통 문화 속에 그물망처럼 얽혀서 전해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구비물은 오랫동안 인구에 회자되고 널리 전파되어야 하기에 문학적 당위를 입고 있어서 표면적(surface structure)으로 보면 환상적이거나 비논리적이거나 생소한 이야기로 포장되고 있다. 그러나 이면적 의미(deep structure)를 천착해 보면 그 지역민의 근원적인 특성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토대로 해서 스토리텔링이 구축되어야만 그 가치가 더해질 것이며 의미 있는 내용으로 영원히 살아 숨 쉴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잘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결국은 그 지역의 고유성, 아이덴티티를 발굴하는 것이 된다. 각 지역의 축제나 문화제 중 이러한 측면이 잘 투영되고 있는 곳은 점차 활성화되고 있고 전통이 쌓여가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호응을 얻지 못하거나 단기간밖에 유지되지

---

을까에 대한 물음에서 이 지역을 선택한다.

못한다. 지역의 구비문화에 내재한 원형이나 아이덴티티를 살려서 점차 번성하고 있는 실례는 태백의 ‘황지못 전설’이나 정선의 ‘아우라지 설화’, 삼척의 ‘해랑당설화’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역은 지역민들의 아키타입이나 아이덴티티가 녹아있는 설화 등을 이용해서 이를 콘텐츠화 했기에 자연스럽게 지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으며, 그들의 동조 속에서 점차 확장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산출하고 있다.

또한 구비문화가 아니더라도 특출한 지역인물이 있거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지역은 이를 대상으로 해서 스토리텔링이나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조성할 수 있으며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역사나 인물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것을 창출하면 되기 때문이다. 즉 표면적인 의미나 주제만을 가지고도 스토리텔링이나 문화콘텐츠로 직접 활용할 수 있다. 이를테면 이효석 문학관이나 황순원 소나기 문학관, 신동엽문학관, 한용운, 이순신, 이울곡 문학관 등이 그러하며, 부여 백제 축제, 정선아라리촌 및 축제, 울산 처용문화제, 화성 행궁 축제, 경주의 다양한 축제 등이 그러한 예이다. 이효석문학관은 이효석 숲길을 걸으면서 단편소설 <메밀꽃필무렵>을 다 읽을 수 있다. 황순원의 문학관은 그곳을 가면 언제나 소나기를 맞을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시간을 정해서 스프링쿨러로 물을 뿌려주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우산을 쓰거나, 비를 맞으면서 즐거워하거나, 주변에 설치해 놓은 원두막으로 몸을 피한다. 이들 문학관들은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는 필요 충분 요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해야 하는가?



〈이효석 문학촌〉

〈황순원문학관<sup>5)</sup>〉

정선군민은 ‘정선아리랑’에 상당한 에너지 및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정선아리랑 축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늘 상주해 있는 ‘정선 아리랑문화촌’은 방을 구하기 힘들 정도이다. 아리랑문화촌은 우리 고유의 토착적인 주택 모습으로 설치되어 있다. 이 중 기와집은 여러 채로 이루어져 있기에 요금이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초가집이나 굴피집은 조금 저렴하다. 저렴하다고 해도 1박에 10만원이나 한다. 겉모양은 초가집이나 굴피집이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최신식 시설과 깨끗한 침구가 완비되어 있다. 반전의 매력이 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콘텐츠를 조성해 놓고 있다. 콘텐츠 분야에서 아쉬운 점은 많지만 현재 상태만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은 교육상 이곳에 와서 머물고 싶어 한다. 민속촌처럼 관광객을 받지만 ‘숙방 중’이라는 팻말이 있는 집은 함부로 집안 구경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외관 구경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현재 아리랑문화촌만으로도 관광객이 많이 오지만 그러나 근본이 탄탄한 콘텐츠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아리랑문화촌’이나 ‘정선아리랑’와 관련 있는 곳에 ‘정선아리랑’에 나와 있는 요소들을 첨부시켜야 더 유서 깊어지면서 정체성(아이덴티티)이 분명해 질 것이다. 이를테면 ① 아리랑문화촌에 심은 나무들을 ‘정선아리랑’에 등장하는 종류들로 구성한다. 특히 동백

5) <이효석 문학촌> 2013년 8월 필자 촬영, <황순원 문학관> 2012년 7월 필자 촬영.

이나 맨드라미, 줄봉숭화, 나무-아주까리 동박나무, 은행나무, 부평초, 무궁화, 국화, 살구, 싸리나무, 철쭉, 오동나무, 매화, 진달래, 단풍, 노가지나무, 참나무, 수삼, 차조, 떡갈나무, 가둑나무, 억새풀, 해당화 등, 아리랑 노랫말에 등장하는 종류들로 조성한다. ② 또한 연못이나 물가에 어린이들 관찰용으로 정선아리랑에 등장하는 ‘부평초’ 등 물풀과 ‘개구리’를 많이 입수시킨다. 봄에는 올챙이를 관찰하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개구리도 관찰용이나 실험용으로 유출가능하게 관리사가 관리하도록 한다. 풍요의 공간인 만큼 긍정적이고 생태 지향적이며 밝은 이미지의 조각품을 배치시킨다. ③ 그 외에도 아리랑 테크를 만들어서 정선아리랑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콘텐츠이다. ④ 정선아리랑 주제에 부합되는 이벤트를 개발할 수도 있다. 정선아리랑의 대주제가 ‘사랑’, ‘풍요’이기에 이 주제에 부합되게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⑤ 정선아리랑 노랫말에 등장하는 곤충, 동물(개구리는 가장 많이 등장), 호랑나비, 새(두견새, 뻐꾸기, 피꼬리, 까치, 까마귀, 종달새, 까투리, 매), 닭, 참매미, 왕거미, 소, 송아지 등을 소재로 비누 만들기, 초 만들기, 나무공예, 손수건이나 티셔츠, 종이 등에 캐릭터 찍기 등 프로그램 운영할 수도 있다. ⑥ ‘웰빙’은 정선음식의 일관되고도 통일된 주제이다. 이들 음식을 이용한다. <아리랑모음집>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네주게” 해설집(강원도민일보)만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많은 종류의 음식이 등장한다. “곤드레 떡꾸기, 참나물, 감자, 된호박장국, 강냉이밥, 곱감, 엿, 풋귀리범벅, 개떡, 참배, 묵, 나물, 사골치기, 강냉이밥 사절치기(=사절치기 강냉이밥, 강낭밥, 사절치지기 옥수수밥: 멧돌에 강냉이를 많이 넣어 빨리 돌리면 굵게 갈리는데 이러한 강냉이를 ‘사절치기’라고 해서 감자를 넣고 밥을 해 먹는 데 썼다), 고비, 고사리, 미꾸라지 생선국, 붉은 밥, 민물 생선국, 호박, 국밥, 돼지고기, 감자, 정선약수, 콩, 녹두 적, 세모잡이 메물국죽”, “술 종류: 옥수수 막걸리, 소주, 감주, 국화주, 입 찹쌀 감주, 막

걸리 등” ⑦ 정선아리랑 노랫말에 등장하는 음식을 고급화하거나 강냉이 밥 사절치기 등 차별화된 음식을 개발하여 아리리촌의 대표 음식으로 소개하고 음식 레시피를 공개하여 일반인들에게 제공한다. 반응이 좋고 긍정적이면 정선군 전체 관광 음식으로 널리 소개한다. 이렇게 정선지역의 제반 사항이나 아이덴티티 등이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을 때 비로소 정선아리랑의 진정한 맥을 잇는 것이며 보다 풍성한 내용이 구성된다.



정선 <아리리 촌 전경><sup>6)</sup>

유서 깊은 도시의 예로는 부여와 공주, 경주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지역은 많은 유적지와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내용만으로도 얼마든지 많은 콘텐츠와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지역이다. 따라서 이곳의 축제나 문화제는 거의 성공했다고 볼 수 있으며 단발적이 아닌, 지속되고 있는 축제나 문화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공주와 부여는 백제의 유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백제에서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그곳의 왕위를 이은 ‘사비왕’의 비극적 이야기를 원소스로 해서 뮤지컬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또한 장관이다. 특히 무대를 물 위에 설치해서 물과 빛과 이야기가 어우러져 많은 볼거리를 선사한다. 마치 계림의 산과 강을 이용한 독창적인 연출로 평범한 이야기를 세계적인

6) 2012년 필자 촬영.

공연으로 만든 장예모 감독 작품과 유사한 형상이다. 장예모 감독은 워낙 실력이 뛰어나 그가 연출한 작품들은 세계 관광객들한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비록 규모면에서는 장예모 감독 작품보다 뒤진다 해도 비극적 정조를 잘 살리고 있는 스토리텔링만은 우리가 한 수 위라고 할 수 있다.



백제문화제포스터<sup>7)</sup>



〈사마이야기〉 뮤지컬 공연



이렇듯이 유구한 역사나 인물이 표면화된 곳은 이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문화제나 축제를 수월하게 형성할 수 있다. 기반이 튼튼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유지되면서 활성화될 가능성도, 지속될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도 성공하고 있다. 하지만 특출한 지역 인물이나 두드러진 역사가 별로 없거나 숨어있는 지자체는 어떻게 문화원형을 개발할 수 있을까?

해결점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 지역의 전통문화, 즉 구비물, 민속, 예술 작품 등을 통해서 찾을 수밖에 없다. 이들 작품의 이면적 의미를 규명해서 그 지역민의 오랜 동안의 원망이나 희망, 염원 등의 지역 원형이나 아이덴티티를 규명해서 문화콘텐츠나 스토리텔링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작업에는 능력 있는 국문학자들이 투입되어야 한다. 원소스를 발굴하는 일에 국문학자의 역할은 지대하다. 이들에 의해 원소스가 되는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창작을 하는 스토리텔러들에 의해 재미

7) 인터넷 사이트에서 참고하여 인용.

있는 작품으로 가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가공된 작품이나 문화 콘텐츠는 기반이 든든해서 오래 지속되고 의미 있는 지역문화로서의 가치를 더할 것이다.

그러나 작품의 뜻을 잘 통찰하지 않고 표면적 의미만을 수용해서 그대로 활용한다면 원래의 의미를 왜곡하게 되고 문제도 야기된다. 작품에 내재한 원래의 의미를 잘 파악해서 활용할 때 그 작품의 가치는 지대하고 생명도 길게 유지될 것이다. 실제로 작품들을 표면적 의미만을 가지고 문화콘텐츠화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본다. <처용가>, <헌화가>, <쌍화점> 등을 보자. 이들은 표면적 의미만 가지고 해석한다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고도의 알레고리나 비유로 된 작품이다. 따라서 표면적 의미만을 가지고 가공한다면 작품의 의미를 오도하는 것이기에 가치 있는 작품이 되기 힘들고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도 없다.

실제로 울산에서 열리는 <처용문화제>는 <처용가> 작품을 표면적 의미로만 수용하고 있기에, ‘역신과 처용처의 외도라’는 주제로 귀결시키고 있다. 따라서 ‘간통을 조장’한다면서 특하면 반대파나 문제 제기에 시달리고 있다. 사실 ‘역신과 부인’이 실제 인물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현상에 대한 비유’일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면 전혀 다른 내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데에서 오는 불가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쌍화점>도 고려시대 궁중의 의례악(종묘제례악과 같은 악장의 가사)인데 표면적 의미만으로 해석해서 외설스러운 작품으로 한정해 놓고 있다. 열린 구조를 가진 작품을 닫힌 상태로 오독하는 것은 후손들의 무지 탓이라 할 수 있다.

<헌화가>도 마찬가지이다. 이 작품을 표면적 의미 그대로 받아들여서 는 곤란하다.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수로부인의 행동이 너무나 비상식적이다. 『삼국유사』를 보면 오랜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힘든 상황에서 순정공

은 수로부인을 대동하고 강릉 태수로 제수되어 부임지로 가는 중에 일련의 사건이 발생한다. 첫 번째 사건은 순정공 일행이 바닷가에서 점심을 먹다가 수로부인이 느닷없이 천 길 낭떠러지에 피어있는 철쭉꽃을 갖고 싶어 하면서부터 발생한다. 수로부인은 주변 인물들에게 철쭉꽃을 꺾어달라고 요청하지만 너무 위험한 장소라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다. 이 때, 한 손에 소를 끌고 가던 한 노인이 꽃을 꺾어다 바치면서 노래(헌화가)를 불렀다는 것이다. 이 부분도 의아하지만 그 다음 이어지는 <해가> 이야기는 더욱 특이하다.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이 야기되기 전 언술부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뒤 편안하게 이틀을 가다가~” 편안하게 이틀 갔다는 것은 진술된 사건 외에도 많은 사건이 연이어 벌어졌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맨 마지막 진술 부분이다. “수로부인의 자색과 용모가 절세가인이어서 깊은 산이나 큰 못을 지날 때마다 여러 차례 神物들에게 붙들리었다.” 수로부인의 행위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수로부인은 왜 신물들에게 유독 인기가 많은가도 의문이다.

무엇보다도 신물의 정체는 더 의문이다. 신물은 표면적 의미로는 바다용으로 표현되고 있다. 바다용은 바다에 살고 있는 용이란 의미인데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바다용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바다용을 헐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 않으면 구워먹겠다”는 헐박은 <구지가>의 시문 법과도 연계된다. 이렇듯이 사람들의 헐박과 회유에 자신의 의지를 꺾는 바다용에 대한 정보는 남편인 순정공의 태도에서도 감지할 수 있다. 순정공은 앞서 철쭉꽃 사건 때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상식적으로 이 내용이 작품 표면 의미대로라면 이해할 수 없다. 누가 부인의 그런 행동에 대해 아무 언급도 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수로부인의 소망이 해결된 후 이틀 뒤에 일어난 사건에서도 순정공의 태도는 더 비상식적이다. 아무리 아름답다고는 하나 지아비를 대동한 여인이 빈번히 피납된다는 것과 납치한 대상

이 비록 神物이라고는 하지만 돌아온 부인에게 평정심을 갖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곳이 어떠냐?’고 묻는 남편의 태도 등이 그러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는 표면적인 의미 그 이상의 의미가 내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때, 주목할 점은 이는 바닷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과, 龍에 의해 자행되었으며, 돌아온 여인의 몸에서 향기가 진동했다는 점이다. 이는 용과의 관계를 암시하는 구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돌아온 수로부인의 언행으로 볼 때 여러 가지로 만족함을 표시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우선 피납장소에 대한 장황한 묘사(七寶宮殿)나, 음식에 대한 만족감(“달고 부드러우며 향기가 있고 깨끗하여 이 세상 음식이 아니다”) 표명은 자신의 납치 상태를 불편해 하거나 꺼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기고 기뻐했음을 반영한다. 이런 모든 정황으로 보았을 때 이 이야기담의 원형은 神과의 교합과 풍요적 상징, 즉 接神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sup>8)</sup>

이 두 사건은 사건이 일어난 장소, 즉 공간적 배경이 ‘바닷가’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사건이 야기된 시간도 ‘점심을 먹게 되었을 때’로서 시간적 배경도 동일하다. 즉 ‘바다’인 ‘물’과 ‘음식’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시공간을 공유한다. 여기에 등장하는 용신과 수로부인의 접합(만남) 또한 ‘노인’(현화가)과는 씨니피양만 다를 뿐 이면적 측면에서의 씨니피에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이야기담은 어떻게 보면 동일 이야기의 반복담일 수 있다. 많은 사람들과 곤란한 상황,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수로부인, 바다와 점심으로 상징되는 ‘물과 제물’, 이어지는 노래, 개인의 노래와 많은 사람들의 집단 노래, 그리고 가뭄으로 힘든 상황,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려운 시련을 타개해 나가려는 노력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고

8) 강명혜, 『江原道 民俗信仰의 特性과 起源 및 文學作品과의 관련성』, 『강원문화연구』 제19집,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2000, p.110.

그 중심에 바로 ‘수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물가에서 풍요를 기원하는 어떤 제의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가락국기에 나오는 수로왕이 비록 한자는 다르지만 동일한 ‘수로’라는 점, 둘 다 3월(봄), 물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가락국기>는 3월 禊浴日:물가에서 액을 떨쳐내는 날, <수로부인>의 경우 곤란한 상황은 액을 떨쳐내는 것과는 연관시킬 수 있다), 또한 수로왕을 달라고 하는 노래 <구지가>(생명 탄생)와 수로부인을 달라고 하는 노래인 <해가사>(풍요 주체)도 거의 동일한 주제를 지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화자의 인식 지평에서 바다용은 제의와 관련된 신성성을 지닌 추상적 대상으로 표상되고 있다.<sup>9)</sup>

이런 모든 점에서 <헌화가> 등을 스토리텔링 하거나 문화콘텐츠로 만들 때에는 이면적 의미까지 제대로 파악한 후 시행해야 역사에 오래 남는 전통 있는 작품이나 문화제로서 생존할 수 있다. 현재 삼척에는 헌화공원과 수로부인상이 설립되어 있다. 그러나 수로부인상만 커다랗게 만들어 놓았지 수로부인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특히 지역의 설화와 같은 구비물을 채록, 분석하면 그 지역민의 아이덴티티나 원형이 파악된다. 설화는 역사의 또 다른 언술방식이기에 지역설화에는 그 지역민의 원의와 지향점, 사상, 역사, 문화, 집단주의식 등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스토리텔링이나 문화콘텐츠로 조성한다면 생명력 있는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가 마련될 수 있다.<sup>10)</sup>

9) 강명혜, 『시가 작품 텍스트에 나타나고 있는 해양에 대한 화자의 인식 지평과 문화콘텐츠 방안』 -〈海歌〉에서 〈海에게서 소년에게〉까지-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발표문, 2014.8, pp.21-23.

10) 강명혜, 『바람직한 지역 발전을 위한 전통 문화의 기능과 역할』, 한국예술평론가협의

## 2. 평창지역의 원형, 정체성 및 문화콘텐츠 방안

평창은 2018년 동계올림픽 예정지이다.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었고 현재도 세계 관련자들의 관심이 이곳에 집중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모든 올림픽은 문화올림픽도 수반한다. 그렇다면 평창지역의 스토



리텔링이나 문화콘텐츠는 어떻게 조성되어야 바람직한 것일까? 이는 당연히 평창지역민의 아이덴티티나 원형을 찾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평창지역의 전통문화를 분석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문화 중에서도 설화는 역사의 또 다른 언술방식이기에 평창지역 설화에는 평창 지역민의 원의와 지향점, 사상, 역사, 문화, 집단주의식 등이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평창군은 어떤 설화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sup>11)</sup>

평창군은 전국 군 중 3번째로 큰 지역으로서 해발 700정도의 고도에 위치하며 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용평면, 봉평면, 진부면, 대관령 등 1읍 7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면들의 설화를 살펴보고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회 발제문 중에서 부분 발췌.

11) 평창군, 김선풍, 장정룡, 김경남, 『평창군의 설화』, 2002, 국학자료원, 평창문화원, 『평창군 향토 전설 설화집』, 평창문화원, 1997. 그 외에도 평창군 문화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화를 이용.

1) 평창읍: 샘, 신기한 물, 봉황, 조리 형국, 수해가 없는 평안한 땅  
 평창읍의 설화는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가장 두드러진 내용은 ‘샘물’, ‘신기한 물’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또한 평창은 조리나 봉황의 형국으로 수해가 없는 편안한 지역으로 나타난다. 봉산리는 “봉황새 봉자로 산이 큰 봉황의 형상”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곳은 “송풍(홍풍)이 없는데래요. 여기가. 뭇저 태풍도 산이 높고 그래서 그것두 무시가 되고, 또 우박같은 것두 없구, 영월지방에는 우박도 많지만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계 하여간 농사를 질라면은 평창에 와서 농사를 짓는 게 최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창의 풍수지리>

그러나 평창읍 설화는 무엇보다도 ‘맑은 물, 좋은 물’과 관련된 설화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무려 21편이나 등장한다. 즉 “샘골, 약수, 옥녀봉, 소, 泉洞里(샘골-물이 평평 났다) 샘물, 향물바위-향물내기(평창읍 하리-시동골 물이 요뎨한테 한 쪽박 떠내면 또 한 쪽박인데 고대로 떠내면 또 한 쪽박이어요. 고대로 있어요. 그게 부정한 사람이 가면 딱 없어져버려요) 마지리 용물, 신기한 물, 천동리 유래(그전에는 이 우물 정(井)자, 동 동(洞)자, 그런데 그 뒤 변경된 기 천동리라 그러는데, 저 아래 내려가면 샘이 나는 기 큰 기 있어요. 그 물이 광광 나고 그러니까 천동리로 하지 않았나 그러는데 … 샘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어렸을 적 웃물(우물), 웃물이 많았어요. 웃물을 사방 파놓고, 두레박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서 정동이라 그러지 않았나, 우리 조그마서도, 쪼그마서도 뭐야? 20살 넘어서 개발되고 우물이 말짱 없어졌죠. 그전에 전부 우물 퍼먹었어요.), 용수골, 학강소, 웃물, 지동리 연못, 천제만 지내면 조용해지는 시냇물(그름날 저녁에 천제사를 지낸다. 강변에서 촛불을 켜 놓으면 11시부터 1시 즉 자시에 여울이 내려가는데 그 때는 조용하다. 조용하고 천지가 잔다니까, 촛불도 까닥없어

요. 끝날 무렵 바람이 불면 초가 이래저요), 명우굴(절개산 밑 명우굴에서 문곡리 송어장으로 물이 나간다. 명우굴에서 물이 자꾸 나간다고, 문곡까지 나가 가지고 땅속으로 들어가서 이기 샘 형식으로 돼서 차가와져서 송어가 된다는 얘기가 있다) 등.

그 외에 ‘장사, 용, 호랑이, 효자, 집터와 풍수, 지명이야기, 도깨비이야기, 평양 원과 잣죽(2), 울곡과 너도밤나무, 효자와 개고기, 강감찬과 여우어머니, 강감찬과 부적, 잉어와 산모, 효자가 어머니 눈을 뜨게 하다. 까마귀와 비둘기’ 등이 전한다.

이렇게 볼 때 평창읍민의 원망이나 아이덴티티는 ‘평창지역의 좋은 물’, ‘평창은 안정되고 평안한 곳’, 그러나 ‘적당한 부 형성’ 등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sup>12)</sup> 이런 점에서 평창읍은 ‘물’과 관련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적합하다.

## 2) 미탄면: 은혜 갚는 이야기, 망월놀이

미탄지역의 설화는 ‘은혜갚는 이야기’와 ‘지명유래담’, ‘치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주축을 이룬다. 즉 ‘은혜갚은 새, 까마귀가 된 의붓어머니, 수청리 은행나무 유래, 다시 태어난 노인, 수절과부 열녀이야기’ 등과 ‘지명유래인 마하리, 창터, 삿갓봉의 유래, 백골의 유래, 백운리의 유래(배처럼 생겨서 백운이라고 해), 역촌의 유래, 정선의 무당바위, 소갈골, 굴골, 미탄(평안 1리는 땅이 평안하고 무사하게 지낸다. 미탄은 아름다울 미자 어려울 탄, 미탄을 미창 창송 창자), 용수골, 증산골의 유래(용석골에는 용마가 나오던 발자국이 있다)’ 등과 ‘말이 날아간 명당’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역시 도

12) 즉 문필봉이 깨져서 떨어진 인물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조리가 차면 비워야 하기에 어느 정도만 풍족하다는 부정적인 인식 또한 지니고 있다. 이곳에 제시된 예문은 『강원의 설화』 IV(강원도 평창군편, 2005, pp.345-642.)에서 주로 따옴.

깨비이야기, 호랑이이야기도 등장한다. 또한 치성과 관련된 이야기도 여러 편이다. 이를테면, ‘서낭신 이야기, 정초의 십이지날의 유래, 산치성 이야기, 기화리 서낭제 이야기, 굴속에 지내는 기우제, 정기산의 달점 풍습, 평안리 여서낭제’ 등이 그러하다.

따라서 미탄면의 아키타입이나 아이덴티티는 ‘은혜를 갚아야 하고’, 경건하게 ‘치성’을 드리면서 ‘풍요나 안녕을 갈구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탄면은 ‘달과 불과 관련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 3) 방림면: 지킴이나 산삼 캔 이야기, 도깨비 담 등 횡재와 관련

방림면은 지명유래도 많지만 무엇보다 ‘도깨비와 관련된 이야기’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 편이다. 또한 산삼 캔이야기나 사재산 이야기, 지킴이 이야기, 횡재 등과도 밀접히 관련되고 있다. 지명유래에는 ‘구데미 마을의 유래 (거북모양), 용바위 전설, 버섯봉 유래, 버섯봉과 마을 형국, 덕수바우와 버섯봉, 중당갈봉의 유래(나물이름), 말고 멋다리, 도꾸소(2), 천제당 유래, 덕수바우와 색시골, 도둑고지와 너랑바우, 색시골, 야심이골의 이시미, 솟돌봉, 운교리의 유래, 창수골유래’ 등이 있으며, 도깨비 담도 ‘도깨비에게 홀린 이야기, 도깨비불, 도깨비 물장난하는 이야기’ 등이 전한다. 또한 ‘산삼 캔 이야기, 부정이야기, 지킴이이야기, 서낭당이야기, 팔전달 구갈보, 사재산의 네 가지 보물, 칩사리 다섯 구비, 개가 외로 넘어지면 호랑이가 안 먹는다. 사람 속인 이야기, 지킴이2, 호랑바우에서 호랑이 잡는 방법, 순사 호랑이’와같이 횡재하는 이야기가 주축을 이룬다. 따라서 이 지역의 원형은 횡재하고 싶은 열망이라고 할 수 있다. 산삼과 관련된 스토리텔링이나 콘텐츠, 심마니 산신제 등을 개발한다.

#### 4) 대화: 보은, 부귀와 관련

대화면도 “아들 낳게 해 주는 돌이야기, 아들을 낳게 해 주는 소나무 이야기, 까치의 보은” 등 보은담이 많으며, 금기사향도 많이 등장한다. 즉 “서낭제의 금기, 계절점이야기, 밤에 손톱을 깎지 않는 이유, 정월 대보름 귀신 달기 날, 문지방이야기, 화장실 귀신, 짚신과 화장실 치성, 산후 금줄, 귀신을 머리카락이 구렁이로 보인다.” 등이 그러하다. 그 외에 “돼지가 집으로 들어오면 길하다.”, “도깨비이야기, 도깨비 사귀어 사귀어 부자가 된다. 빛자루가 변한 도깨비”, “일천석 최부자” 등 황재나 벼락부자, 벼슬에 대한 기원 등의 염원이나 원망이 아키타입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곳은 ‘행운을 가져다 주는 돌’, 최부자 집안의 ‘황구렁이’ 등을 스토리텔링, 콘텐츠화할 수 있다. 황씨 할머니가 치마폭, 혹은 바구니에 들어가 있는 황구렁이를 가져와서 장롱에 소중한 보물로 보관한 후 일천석이 넘은 부자와 2대에 이르기까지 과거에 급제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혹은 문화콘텐츠로 이용할 수 있다.

#### 5) 봉평-악을 물리치고, 부자되고, 보은과 행운을 주는 것과 관련

봉평면은 용평과 더불어 스토리텔링이나 문화콘텐츠 할 자료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이곳은 ‘태기왕 이야기, 태기산성의 유래, 봉평은 태극지지, 태은 선생이야기’와 관련이 있고, ‘안장바위, 투구봉, 용마봉, 옥산대, 왕유리’ 등으로 태기 왕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비록 태기 왕이 망한 곳이라는 하지만 태기 왕을 주제로 해서 비극적 정조가 있는 작품을 구상해도 좋을 것이다. “태기산은 어머니처럼 인자한 산으로 나무를 하던가 해서 뒤를 해도 굴러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봉평은 태극지 지라고 하며 지리학상으로 태극지지 안에는 명인열사 인물이 많다고 한다.

실제로 이곳은 이울곡이 잉태된 곳이며, 이효석의 고향이기도 하다. 또한 ‘봉평지세는 부채를 펴놓은 것처럼 아름답다’고 한다. ‘평창군 내에 이씨 조선 대 과거에 합격한 분 진사과라도 합격한 분은 봉평 밖에 없다’고 한다. 이울곡선생의 잉태담과 생명을 구한 이야기(너도 밤나무) 등은 훌륭한 스토리텔링이나 콘텐츠 소재가 된다. 이곳에는 또한 이울곡선생과 이항로 선생을 모신 사당이 있다. 이 사당을 봉산서재라고 한다. 아홉용이 지나다니던 흔적이 있는 구룡소나 무이라라고 이름을 지었더니 나갔던 신령이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도 스토리텔링이나 콘텐츠 소재로 이용할 수 있다. 이곳은 특히 훌륭한 인물이 잉태하는 좋은 지역이라는 이미지와 행운이 있는 땅이라는 아키타입이 강한 지역이다. 이것을 이용하면 좋을 것이다.

#### 6) 용평-물리친 이야기, 보은, 행운, 재산과 관련.

##### 옥쇄가 있는 곳, 金鷄抱卵形

용평 설화는 호랑이를 물리치고(솔가지를 가지고 범을 물리친 노인, 목침으로 호랑이를 물리친 현명한 여인, 호랑이를 골려 준 토끼, 호랑이를 물리친 지혜로운 아이들, 호랑이도 감동한 효부, 우산장수와 호랑이, 호랑이 그걸 쥐면 호랑이를 이긴다), 부자 되고, 갱아주고 보은해 주고, 행운을 주는 이야기(형을 살린 동생, 어사가 준 직위, 어사박문수, 버릇고친 효자, 원수를 갱아준 원님, 은혜를 갱은 물고기의 보은, 행운을 가져다 준 흥가, 재산재의 분틀 구름)가 주축을 이룬다. 특히 이울곡의 부친인 원수공이 살던 고장인 만세동(판관대)과 신사임당이 몸을 씻던 곳인 궁궁소 담이 전하며, 판관대 바로 옆에 호랑바위, 용바위, 거북바위가 유명하다. 본동에 있는 용바위는 용이 위쪽으로 쳐다보고 있는 형상이며, 호랑바위는 산에서 마을을 지켜본다. 즉 맨 위에는 호랑이가 지키고 있고, 밑에는 용이 지키며, 그

밑에는 거북이가 지킨다. 또한 아홉용이 있던 구룡포가 있고, 태기왕이 옥쇄를 내 던진 곳인 옥포리(태기왕이 엎어져 죽었다고도 한다)도 있다. 또한 용평은 금계포란형의 지세를 가지고 있어서 부를 획득하는 지역이라고 한다. 부획득과 긍정적인 마인드가 이 지역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다. 호랑이 이야기나 판관대 이야기, 옥포리 등을 이용해서 스토리텔링이나 문화콘텐츠를 조성할 수 있다.

7) 진부-보은과 관련, 특별한 혜택을 받음,  
세조이야기, 만과봉, 약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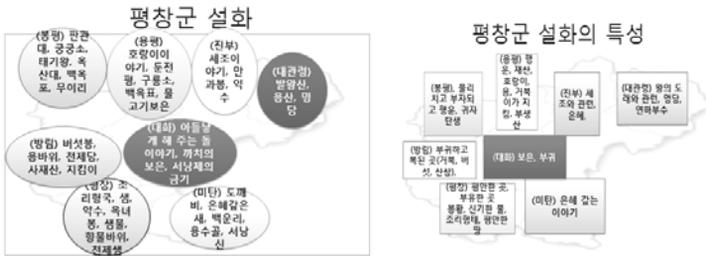
진부는 무엇보다도 월정사와 세조이야기, 방아다리 이야기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곳은 불심과 거기에 따른 보상이 아키타입을 이룬다. 특히 세조를 살린 고양이, 세조의 병을 고친 문수보살, 세조가 먹고 남은 산신초, 세조와 문수동자 이야기가 있으며, 세조가 이곳에서 과거를 베풀었다는 만과봉 이야기도 독특하다. 방아다리 약수이야기와 은혜 깊은 싹뻘, 거북이의 보은 등 보은과도 상당히 밀접하다. 진부와 관련된 스토리텔링과 문화콘텐츠는 불교와 상당히 밀접하며 월정사에서 이미 스토리텔링이나 문화콘텐츠를 어느 정도 구비해 놓고 있다.

8) 도암(대관령)-언제나 왕이 도래하는 곳,  
발왕산, 용산, 명당 연하부수

도암면은 현재 대관령면으로 개칭되었다. 이곳의 설화를 보면 이 지역은 명당으로서 연하부수지형을 보이는 상당히 좋은 곳이라는 의미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발왕산의 지명유래가 전해지고 있어서 왕의 도래에 대한 스토리텔링이나 문화콘텐츠가 가능한 곳이다. “대관령 산신, 용산의 유래, 호

환이이야기, 도깨비 이야기, 집구렁이, 흰바위 이야기, 강철이이야기”도 전한다. 이곳에는 언젠가는 왕이 도래할 뿔터라는 원형이 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평창지역민의 아키타입이나 아이덴티티를 간략하게 밝혔다. 이를 간략하게 시각적으로 도식화해서 지도에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음 단계로는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스토리텔링이나 문화콘텐츠로 가공할 수 있다. 스토리텔링을 할 때는 스토리를 확장하여 과장된 내용들로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실을 바탕으로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전해진 이야기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미있는 요소와 극적인 부분을 첨가해서 재미있는 가공물이 되도록 해야 한다.

우선, 각 지역에서 전해지는 대표적인 스토리를 스토리텔링이나 문화콘텐츠로 적극 활용한다. 그 외에도 평창군 전체에 해당하는 스토리텔링도 만들어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평창군 전체에 해당하는 규모가 큰 스토리텔링은 ‘이울곡’과 ‘태기 왕’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일례로 <이울곡과 부모>와 관련된 스토리텔링을 뼈대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너도밤나무!>

- ① 이울곡의 부모인 이원수와 신사임당의 사랑이야기(만남과 이별, 결연 등 극적 요소를 마련해서 스토리를 조성)
- ② 이원수와 신사임당은 한양과 강릉에 거주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 평창 봉평에 거처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만난다. 이원수가 생활하던 판관대 및 신사임당이 목욕하던 궁궁소 등을 부각시킴.
- ③ 어느 해 이원수가 평창 봉평을 가는 도중 날이 어두어져 미탄(대화?) 어느 주막에 머문다.
- ④ 주막집 여인이 용꿈을 꾸다. 그 때 주막으로 들어서는 이원수의 얼굴에 서기가 서려있는 것을 보고 유혹한다.
- ⑤ 이원수가 완강히 거절하고 봉평으로 향한다.
- ⑥ 신사임당 또한 용꿈을 꾸고 낭군을 만나러 봉평으로 향한다. 봉평으로 가는 도중 용이 승천하는 것을 목격한다. 실은 이무기였는데 신사임당이 “용이다”라고 소리를 질러주는 바람에 용으로 승격되어 승천한다.
- ⑦ 이원수와 신사임당의 행복한 시간
- ⑧ 이원수가 한양으로 가는 도중 그 여인한테 너무 심하게 대했다는 생각에 주막으로 가서 회포를 풀고자 한다.
- ⑨ 주막집 여인은 “당신한테 서려있던 서기가 사라졌기에 지금은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태어날 아이가 귀자이지만 1,000 가지 좋은 일을 하지 못하면 호환을 당한 것이라고 말한다.
- ⑩ 이원수는 좋은 일을 1,000 가지 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고 밤나무를 1,000 그루 심는다.
- ⑪ 이울곡은 인시에 태어나고 봉평 판관대 앞에는 호랑이 바위가 있다. 호랑이 바위와 거북바위, 용바위도 스토리로 만들어서 삽입.
- ⑫ 이울곡이 5살이 되었을 때 늙은 중이 나타나 “나는 금강산에서 살고 있는 중인데 이 댁 아드님을 데려가려고 왔습니다.”라고 말한다. 원수공이 “나도 덕을 쌓은 사람이니 우리 아들을 데려가지는 못한다”고 하면서 “밤나무 천 그루를 심었다.”고 하니 중이 “그렇다면 그것을 세어 보자”라고 해서 세어 보았는데 1그루가 부족했다.

⑬ 원수공의 얼굴이 사색이 되자 늙은 중이 “한 그루가 모자라니 기어코 아드님을 데려가야겠습니다.”했다. 그러자 갑자기 등 뒤에서 나무 한 그루가 “나도 밤나무!”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늙은 중이 혼비백산하여 큰 호랑이로 둔갑하여 달아나 버린다.

⑭ 이울곡선생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 잠깐 삽입. 풍년기원 소놀이 시행

⑮ 현종 3년 나라에서는 관관대가 이울곡선생을 잉태한 영지라고 하여 이 지역 산과 전답을 포함하여 사방 5리를 하사하고 감관을 파견하여 관리하고 제향을 드리도록 했으나 일제 후 잘 시행될 수 없었다. 현재 봉평 평촌리 봉산서재에는 울곡선생과 이항로 선생의 신주가 모셔져 있다.

이것과 관련된 문화콘텐츠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위기에서 구해주는 울곡 밤 개발
- ② 평창에 와서 머물면 귀자를 임신한다.(울곡 및 이효석 잉태지)
- ③ 평창은 좋은 기운이 있어서 부를 획득한다.
- ④ 돈을 벌게 하는 금색 뱀(귀여운 캐릭터) 혹은 꼬마 용
- ⑤ 울곡 아기 캐릭터 개발
- ⑥ 애니메이션, 뮤지컬 개발-연출 중요
- ⑦ 주막을 콘텐츠-주막음식 및 향토적인 음식 판매

<부활을 꿈꾸는 태기왕>

- ① 맥나라의 마지막 왕인 ‘태기’는 국운이 다 되었음을 알고 쫓기다가 봉평 德高山(즉 태기산)에 자리를 차지하여 산성을 쌓아 만들고 병마를 훈련시킨다.(4년 동안) 미탄의 햇볼놀이를 정리해서 시행.
- ② 태기왕의 부하 삼형제 장군과 호령 장군 두 장군이 있었다. 삼형제 장군은 삼형제봉에 진을 치고 군사 3백명으로 일대를 이루고 호령 장군은 호령봉(현 會令峰)에 군사 5백명으로 진을 치고 훈련을 했다.
- ③ 마침내 진부면 도주골(현 道師里)로부터 예국의 대국이 쳐들어 와 호령장

군과 그 밑의 군사들을 전부 멸하고 태기산으로 몰려 왔다. 용맹이 싸웠지만 워낙 역부족이라 태기왕은 궁지에 몰린다.

④ 이러한 소식을 접한 삼형제 장군은 진을 버리고 군사를 몰아 태기산성으로 달려간다.

⑤ 그러나 산성이 함락되고 전세가 돌이킬 수 없는 것임을 알고는 태기왕과 함께 산성을 벗어나 급히 피한다.

⑥ 태기왕은 적군의 추격이 급하여 피난하면서 내일을 기약하기로 하고 중투구와(투구봉), 옥대(현 안홍동), 그리고 옥새를 숨긴다(천방급소).

⑦ 그러나 이미 王을 호위하던 군사들이 전멸하여 더 이상 어찌할 수 없게 되자 무이리로 가서 숨는다.

⑧ 전세를 뒤집을 수 없음을 깨달은 왕은 옥포리로 가서 몸을 던지려 한다. 이를 참아보지 못하던 삼형제 장군은 왕한테 등을 내민다. 왕과 한 몸이 된 삼형제 장군을 옥포리에 몸을 던진다. 평창아라리 삽입

⑨ 왕은 큰 소리로 소리친다. 언젠가는 다시 이곳에서 환생하겠다고.

⑩ 태기산 산신령 굿 시행

⑪ 냇가에서 천제지내기- 태기왕이 현현해서 산삼을 집지해 준다.

⑫ 앞으로 평창 지역 누군가의 아들로 환생해서 왕이 될 것이라고 태기신은 약속한다.(발왕산)

이것과 관련된 문화콘텐츠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태기 왕 무예촌 구축-종합적인 콘텐츠 개발,

태기 왕 캐릭터 개발, 역시 뮤지컬이나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태기 왕 투구, 옥새, 옥대 등 상품화

옥새 찾기 등

각 면단위마다 그 지역의 전통문화 등에 내재한 아키타입이나 아이덴티티를 근거로 해서 스토리텔링 및 문화 콘텐츠를 구축한다. 일례만 들면 다

음과 같다.

## 평창읍

평창읍민의 원망이나 아이덴티티는 ‘평창지역의 좋은 물’, ‘평창은 안정 되고 평안한 곳’, 그러나 ‘적당한 부 형성’ 등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살린다.

- ① 세계 차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샘골, 옷물, 향물, 천동리 물, 용수골, 학강소, 지동리 물 등을 스토리텔링해서 이용)
- ② 평창의 생수 판매로 이어지게 스토리텔링(피부에 좋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는 물)
- ③ 피부에 좋은 물을 이용한 물축제를 기획해도 좋다.
- ④ 약수나 생수를 특정 장소에서 색깔 별로 열려서 열린 고드름을 하드로 만들어서 판매 혹은 체험하게 한다.
- ⑤ 약수관(탄산수, 방아다리 약수, 옷물 등을 이용)을 만들어서 관광객이 맛보거나 판매하게 한다.



- ⑥ 평창문화촌을 설립해서 평창의 모든 전통문화 및 문화콘텐츠를 한 곳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 ⑦ 몇 개의 설화를 합쳐서 하나의 이야기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위에서 제시한 <너도 밤나무!>, <부활을 꿈꾸는 태기왕> 등.
- ⑧ 평창문화촌에 뮤지컬 전용극장을 설립한다. <너도 밤나무!>와 <부활을

꿈꾸는 태기왕> 등을 뮤지컬로 만들어서 항시 공연한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늘 공연을 하며(후에는 이 공연만을 보러 오게 만들),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연한다.

⑨ 평창문화촌에는 주막을 설치해서 운영한다.

⑩ 평창지역은 인재 잉태지라는 너도 밤나무 이야기와 옥쇄를 찾아서 언젠가는 왕이 될 인물이 탄생된다는 스토리텔링을 확산시켜서 신혼부부도 찾아오도록 한다.

⑪ 신기한 물, 약수, 샘과 관련된 스토리텔링-병도 낫고 시련을 극복해서 부귀를 획득하는 줄거리로 진행(옥쇄가 담겨있는 물과 관련된 스토리텔링 구축).

⑫ 산신령 굿, 심마니 산신제, 풍년기원 소싸움, 보름 불 씨움 등의 민속놀이를 부활시켜서 문화촌에서 공연. 뮤지컬 외에도 축제 형식으로 시행한다.

### Ⅲ. 나오기

지역의 사회, 역사, 문화 배경 및 지역민의 소망이나 원망, 희망 등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직조, 적층되어 있는 민속이나 문화, 구비문학 등 문화유산의 표면적, 이면적 내용을 파악해서 스토리텔링이나 문화콘텐츠를 조성할 때 비로소 뿌리 깊은 축제나 축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고 전통도 쌓이면서 부가가치도 창출될 수 있다. 본고는 이를 염두에 두고 실제로 지역의 문화나 민속, 구비문학 속에 내재한 지역민의 오래된 소망이나 원의, 희망 등을 찾아서 이를 적용한 스토리텔링이나 문화콘텐츠의 방향이나 성격, 종류 등을 일부 제시해 보았다.

문화유산이 풍부하거나 특출한 지역인물이 있거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지역은 스토리텔링이나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조성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역사나 인물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것을

창출하면 되기 때문이다. 즉 표면적인 의미나 주제만을 가지고도 스토리텔링이나 문화콘텐츠로 바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작품의 뜻을 잘 통찰하지 않고 표면적 의미만을 수용해서 그대로 활용한다면 원래의 의미를 왜곡하게 되고 문제도 야기된다. 실제 작품들을 표면적 의미만을 가지고 문화콘텐츠화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경우 중에는 <처용가>, <헌화가>, <쌍화점> 등인데 이들은 표면적 의미만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되는 고도의 알레고리나 비유로 된 작품이다. 이들을 표면적 의미만을 가지고 가공한다면 작품의 의미를 오도하는 것이기에 가치 있는 작품이 되기 힘들고 제대로 된 기능을 한다고도 볼 수 없었다. 실제로 울산에서 열리는 <처용문화제>는 <처용가> 작품을 표면적 의미로만 수용하고 있기에, ‘역신과 처용처의 외도라’는 주제로 귀결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간통을 조장’한다면서 특하면 반대파나 문제 제기에 시달리고 있었다.

본고에서는 평창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평창 지역의 구비문화, 특히 설화를 대상으로 해서 평창민간의 원형이나 아이덴티티를 규명해 보았다. 그 결과 평창읍은 샘, 신기한 물, 봉황, 조리 형국 등으로 수해가 없는 평안한 땅, 미탄면은 은혜 깊은 이야기, 망월놀이, 방림면은 지킴이나 산삼 캔 이야기, 도깨비 담 등 횡재와 관련, 대화는 보은, 부귀와 관련, 봉평은 악을 물리치고, 부자되고, 보은과 행운을 주는 것과 관련, 용평은 물리친 이야기, 보은, 행운, 재산과 관련. 옥쇄가 있는 곳, 金鷄抱卵形, 진부는 보은과 관련, 특별한 혜택을 받음, 세조이야기, 만과봉, 약수, 도암(대관령)은 언제나 왕이 도래하는 곳, 발왕산, 용산, 명당 연하부수로 환원되고 있었다.

스토리텔링이나 문화콘텐츠 방안도 일부 제시했는데, 스토리텔링을 할 때는 스토리를 확장하여 과장된 내용들로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실을 바탕으로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전해진 이야기들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내재한 주제가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

미있는 요소와 극적인 부분을 첨가한 가공물을 만드는 것이다. 평창의 대표적인 스토리텔링은 <울곡>과 <태기왕>에 관련된 것으로 이들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면 좋다고 보았다. 이들 스토리텔링과 관련되는 문화콘텐츠는, <울곡>의 경우는 ① 위기에서 구해주는 울곡 밤 개발, ② 평창에 와서 머물면 귀자를 임신한다.(울곡 및 이효석 잉태지), ③ 평창은 좋은 기운이 있어서 부를 획득한다, ④ 돈을 벌게 하는 금색 뱀(귀여운 캐릭터) 혹은 꼬마 용, ⑤ 울곡 아기 캐릭터 개발, ⑥ 애니메이션, 뮤지컬 개발-연출 중요, ⑦ 주막을 콘텐츠-주막음식 및 향토적인 음식 판매, <태기왕>의 경우는 ① 태기왕 무예촌 구축-종합적인 콘텐츠 개발, ② 태기왕 캐릭터 개발, 역시 뮤지컬이나 애니메이션으로 만듦 ③ 태기왕 투구, 옥쇄, 옥대 등 상품화, ⑤ 옥쇄 찾기 등의 방향으로 개발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그 외 각 면단위마다 그 지역의 전통문화 등에 내재한 아키타입이나 아이덴티티를 근거로 해서 스토리텔링 및 문화 콘텐츠를 다양하게 구축할 수 있다. 이렇듯이 그 지역의 원형이나 아이덴티티를 고려해서 지역민의 집단 무의식, 즉 그들의 오래된 열망이나 원의, 원망 등이 내재한 스토리텔링이나 문화콘텐츠가 조성될 때 비로소 지역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으며 적극적인 동조가 수반되면서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지속적인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동인이 된다.

## 【참고문헌】

- 강명혜, 『江原道 民俗信仰의 特性과 起源 및 文學作品과의 관련성』, 『강원문화연구』 제19집,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2000, p.110.
- \_\_\_\_\_, 『한국문학, 문화와 문화콘텐츠』, 지식과교양, 2013.
- \_\_\_\_\_, 『시가 작품 텍스트에 나타나고 있는 해양에 대한 화자의 인식 지평과 문화콘

- 텐츠 방안, 『<海歌>에서 <海에게서 소년에게>까지-『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발표문, 2014.8, pp.21-23.
- 『강원구비문학전집』 평창군편, 1989, 한림대학교 출판부.
- 『강원의 설화』 IV, 강원도 평창군편, 2005, pp.345-642.
- 김선풍, 장정룡, 김경남, 『평창군의 설화』, 국학자료원, 2002.
- 김의숙, 『강원도 민속문화론』, 집문당, 1995.
- \_\_\_\_\_ · 강명혜, 『강원인의 생산민속』, 민속원, 2006.
- 나카자와 신이치, 김옥희 역, 『신화. 인류 최고의 철학』, 도서출판 동아시아, 2009.
- 박종익, 『한국구전설화집』, 민속원, 2000.
- 서대석 편, 『조선조문화설화집요(1),(2)』, 집문당, 1991.
- 손진태, 최인학 역편, 『조선설화집』(양장), 출판사 민속원, 2009.
- 스티븐 코헨 · 린다 샤이어스, 임병권 · 이호 옮김, 『이야기하기의 이론』, 한나래, 1997.
- 아르노스, 송재용, 추태화 역. 『조선의 설화와 전설』, 제이앤씨, 2007.
- 이동철, 『한국 용설화의 역사적 전개』, 민속원, 2005.
- 평창문화원 인터넷 사이트, ‘평창군 문화’, 평창군 역사’ 참조.
- 평창문화원, 『평창군 향토 전설 설화집』, 1997, pp.1-30.
- 『한국구비문학대계』 강원도 평창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 『한국의 마을제당』2권 강원도편 평창 편, 국립민속박물관, 1997.
- 『한국의 가정신앙』 강원도 평창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 홍태한, 『한국구전설화집』, 민속원, 2010.
- 황인덕, 『이야기꾼 구연설화』, 박이정, 2007.
- Mike Featherstone., *Understanding Culture : Globalization. Postmodernism and Identity.* Sage, 1995.
- Jean Chevalier & Alian Gheerbrant. trans. John Buchanan-Brown., *A Dictionary of Symbols.* Blackwell, 1994.

**Abstract**

First Step in Discovering preferable Contents:  
 Finding Local Residents' Archtype and Identity  
 - Focused on Pyeongchang area -

Kang, Myeong-Hye

It is natural that social, historical, cultural background and wish, resentment and hope in the locality have profoundly soaked into and weaved the local folklore, local culture and oral literature. Therefore the local residents' collective unconsciousness has stacked in the local culture, folklore, and oral literature. When the culture festival with particularly local archetype such as local mindset, residents's wish and hope is set and vitalized, traditional festival or celebration can be ranked and create added value building up tradition. This paper studies the archetype or identity of people in Pyeongchang targeting the region of Pyeongchang regarding oral literature and folktales in this area.

A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Pyeongchang is a peaceful land with no flood damage, spring, marvelous water, phoenix, strainer-shaped land. Mitan has had a folk tales about repaying one's kindness and play of watching the moon. Banglim has had windfall-related stories about protection, digging up ginseng plants and a wall of hobgoblin. Dewha has had wealth-related stories and story about returning thanks for favors received. Bongpyeong has had folk tales related to returning thanks for favors received and forwarding good luck by defeating evil and becoming rich. Yongpyeong has had folk tales about defeating, returning thanks for favors, fortune, possessions, the place to be a royal seal and egg shape of gold chicken brooding. Ginbu has had story about returning for kindness, receiving the benefits, king Sejo mankwabong, mineral water. Doam (Daegwallyeong) has concluded by place of advent of King, Balwhangsan, Youngsan, Yeonwhabusu, as propitious site.

Storytelling-related cultural contents have “Yulgok” and “King Tegi”. Contents of Yolgok have ① the development of Yulgok’s chestnut saving life in a crisis ② pregnancy of noble son in Pyeongchang (birthplace of Yulgok and Lee Hyoseok) ③ acquisition of wealth because of Pyeongchang’s good energy ④ golden snake (a cute character) or little dragon to bring in more money ⑤ development in the character of baby Yulgok ⑥ the importance of development and directing in animation and musical ⑦ contents of tavern such as selling of food at tavern and local food. Contents of King Tegi have been developed ① construction of martial arts village og King Tegi and development of general contents ② development in the character of King Kegi by making musical or animation ③ commercialization of King Kegi’s helmet, royal seal and belt ④ Finding of royal seal.

Key Word : locality, wish, weaved, collective unconsciousness, stacked, archetype, value building, Pyeongchang, oral literature, traditional festival, identity, marvelous water, fortune, Storytelling

강명혜

소속: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원 연구원

전자우편: myonghye1212@hanmail.net

이 논문은 2015년 10월 31일 투고되어  
2015년 11월 3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5년 12월 9일 게재 확정됨.